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2 주차 (롬 1:4~7)
(2017년 1월 8일 - 2017년 1월 14일)
(제 5 권 2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 5 권-제 2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7 년 1 월 8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주일)

오늘의 본문 (눅1:4)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모든 은혜와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왔다고 선언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 세 단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그들은 이 세 단어에 목숨을 걸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세 단어를 얼마나 진실되게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는 “예수”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비밀리에 혼인 관계를 끊고자 했다. 율법대로 하자면 마리아의 부정 행위를 공개하여 망신을 준 후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해서 정혼자를 사지로 몰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아무도 모르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놓아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20-21).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다. 예수는 이름 그대로 구원자로 오셨다. 죄에 얽매어 사는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가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죄를 사하신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죄를 크든 작든 인간 사회의 법이나 윤리를 어긴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 물론 시골에서 여름에 남의 밭에 들어가 참외 하나 따먹은 것도 죄고, 어린 아이가 학용품 산다고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군것질하거나 게임을 한 것도 죄다. 그런데 과연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극히 선하고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것이 죄일 수 있고, 반대로 당연히 악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부당한 것이 선이 될 수 있다. 기독교에서 죄나 구원의 문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상의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용돈을 타낸 것 정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용서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용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에 대한 규명이 먼저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에 선악과를 먹었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엄밀히 말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끊으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끊고 대신 심판의 칼날을 드리대고 있는 형국이 바로 죄의

단상이다. 그렇기에 바울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부터 숨을 거두기 직전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⁴⁰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⁴¹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⁴²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12).

결국 죄용서란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이 선언하셔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죄용서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인간들 스스로가 채무를 갚게 되어서가 아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죄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되어 그 값을 대신 치렀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화목 제물’임을 깨달았으며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바울이 말하는 희생 제물이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한 대속제물을 의미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간의 죄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다.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 제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인간들은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다.

“⁴⁰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⁴¹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⁴²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⁴³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⁴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0-14).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몸이 제물로 드러졌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거룩함을 선물로 얻었고 그로 인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의무도 아니며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동체에서 정한 도덕이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시지 않는다. 죄란 도덕이나 법의 범주를 초월한 존재 자체의 정체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믿는 자라면 바로 그 의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 바울처럼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스스로가 죄인입니까? 당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요?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1:4)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셨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빛을 찾아주셨고, 앓은 병이를 일으키셔서 자유로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해주셨으며, 병어리의 입을 열어 말로 소통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초능력도 보여주셨다. 풍랑을 잠잠케 했으며, 물리학의 법칙을 초월하여 물 위를 걷기도 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덤으로 보여준 이적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행하신 후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떠받들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다. 세상에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해야 할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한 일을 온 세상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와는 전혀 반대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다.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허망하게 잡혀 죽자 자괴감으로 인해 과거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선포한 복음을 보면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행 2:36).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살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안치되었고 그 몸이 썩어 백골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단지 희생 제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바로 그 죽은 예수의 부활에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난다. 부활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핵심 사건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용서에 해당한다면 부활은 믿는 자의 온전한 의를 의미한다. 바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이 구절은 복음에 대한 정의로도 유명하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음의 최종 대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으로 다시 오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존재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을 보내 주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믿는 자에게 주신 유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만 언급해 보기로 한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그 결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죄의식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일말의 수치심도 없다면 그는 분명 양심에 화인맞는 사람일 게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미 끝내셨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뜻한다.

둘째,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다. 율법을 따라 헌금을 하고, 율법을 따라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자들이다. 인간들은 스스로 어떠한 의도 만들어 낼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진 의만 유일한 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믿는 자라는 말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낸 율법적인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옷입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친히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부터 당신의 호적에 제 이름을 올려 주세요.”

뭔가 어색하지 않은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대로 성실히 행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결과인 것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신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나요?

예수가 주다!(화요일)

오늘의 본문 (눅1:4)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쓴 표현 중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우리 주’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라는 말은 너무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단어다. 얼마간 교회에 출석하면 그저 입에 붙은 말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가 ‘주님’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마치 특별한 것처럼 강조하고 있을까?

오늘날은 그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 당시 ‘주님’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금기어였다. 실제로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갑은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말도록 한 로마 당국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순교 당했다. “예수가 주다!”라는 말은 “시저가 주다”라는 말에 명백히 대치되는 양립 불가능한 고백이었다. 당시에는 이 세상에 주(Lord)는 오직 시저 한 사람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신반인인 황제를 경시하고 그 위상을 단순한 인간의 위치로 끌어내리려는 불온한 언행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로마제국 변방의 식민지에서 반역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일개 유대인 청년을 주라고 말함으로써 그를 신의 아들의 위치에까지 떠받드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 단어는 기독교가 대대적인 핍박을 받는 빌미가 되었다. 사실 기독교가 ‘예수가 주다’라는 고백만 하지 않았어도 로마 제국에 의해 그렇게 가혹한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음 당하기까지 ‘예수가 주다!’(Jesus is LORD!)라고 고백했다. 그 말만 입밖에 내지 않았더라면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들은 이 짧은 고백 하나를 자신들의 목숨과 맞바꾸었을까? 물론 신앙을 목숨처럼 여긴 그들의 신념 때문이었겠지만 앞서 언급한 폴리갑이 순교당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글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다.

“폴리갑은 경기장에 끌려오기 전에 체포될 때 너무도 의연하고 인자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기쁨 있게 병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며 자신만의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고는 그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평생을 섬겼던 하나님과의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이렇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백발의 노인을 형장으로 이끌고 가야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비관하고 마음의 찢림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총독은 폴리갑에게 이제 고령이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이미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대답하고는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나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기독교타임즈 2006년 4월 5일자에서 인용).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한 인간의 신념이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폴리갑 한 사람 외에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다면 그건 단순히 개인적 신념이나

의지의 차원을 넘어선 전혀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한다. ‘예수가 주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원천은 인간내면의 신념 그 이상의 어떤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고린도에 보낸 그의 첫 번째 편지의 일부를 읽어보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바울의 이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사람으로 인식했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주’라고 인식했다. 그런데 ‘예수가 주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은 그 원천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야 할 주님이시기도 하다. 사실 여기에서 신앙의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혜택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도 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해주셨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인간들은 그 사역에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구원은 신앙의 시작점이지 종착역이 아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16:24).

이는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의 좋은 것을 모두 손에 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장밋빛 탄탄대로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요즈음은 “예수가 주다!”라는 말을 한다고 잡아다가 고문을 하거나 죽이는 일은 없다. 그렇기에 이 선언을 너무도 가볍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분명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하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게 될 것이다. 신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을 당신의 주라고 고백한 후 당신의 삶은 그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1:5)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와 사도됨을 받은 목적을 ‘모든 이방인 가운데에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라고 했다. 물론 너무도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도들이 ‘믿음의 순종’을 위해 사도됨을 받았다고 천명한 이유는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믿음’으로 보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 모두 40 번 나온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장 5절의 이 말씀이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은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믿음이 순종의 원천이라는 말이다. 진정한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리 문화에서 믿음이란 상호간의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된다. 우리나라 국어 대사전은 믿음을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마음에 달린 셈이다. 그 마음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타자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규명하고자 했던 믿음도 우리말 사전이 정의하는 바로 그것일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을 인간의 마음이나 신념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믿음을 인간의 밖에 존재하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라고 말한다. 그리고 믿음은 객관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로마서 3장 21절~26절은 그 믿음을 설명한 가장 핵심 구절에 해당한다. 우선 한글 성경을 읽어 보고 믿음이란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보기로 하자.

‘²¹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²²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²³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²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²⁵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²⁶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롬 3:21-26).

이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22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는 부분이다. 두 구절 모두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고 ‘말미암는’ 또는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22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헬라이어 본문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을 통해’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이고, 25절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은 ‘그의 피에 의한 믿음을 통해’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로 번역된다. 따라서 헬라이어 원문에 의하면 믿음은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피흘림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같은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믿음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간 내부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 오는 신비한 능력이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객관적인 실체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엡2:8참조).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의로 삼게하신 것이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신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때론 의심하고, 때론 부인하기도 한다. 심지어 연로하신 분들은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기억이나 신념들이 사라지는 슬픔을 맞이할 수도 있다. 만약, 믿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신념이라면 믿음은 그 자체로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울은 믿음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는 한 인간이 그 믿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에 믿음은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변치않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물인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이 인간에게 들어 오면 누구나 예외없이 그 믿음에 순종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믿음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 오면 인간은 마침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할 수 밖에 없다.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은 인간들 앞에서 바로 그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에 순종한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고, 더 나아가 그들을 핍박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나누어주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은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다.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순종하고 말고는 전하는 자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기에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믿음 또한 인간의 마음 따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도 않는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의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1:5)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사도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 한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은 단지 예수님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는 ‘후페르’(ὕπερ)인데 이 단어는 남의 자리에 선다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대표하여’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 하겠다. 그렇기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에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면 쉽게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의미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공생애의 첫걸음을 내디디셨다.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회중들 앞에서 서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셨다. 예수님이 읽어 내려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예수님이 읽으신 부분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다. 예수님은 하필 왜 이 부분을 읽으셨을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 편에 선다는 말의 의미가 담겨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셨다. 사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더 문제였다. 물질적 가난은 사람을 위축시켜 영적 가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 강론하시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단어가 가난이다.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프토코스’(πτωχός)다. 프토코스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의 결핍을 의미한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의 부재 말이다.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의를 대신 채우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대편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 사사건건 반기를 든 세력은 놀랍게도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실천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한 의에 다다르려고 노력한 자들이다. 사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4).

사도 바울은 유대교 분파 중에 바리새파에 속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3대 종파 중 가장 세력이 강했던 종파였다. 그들은 정말이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외견상 그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물론 지금의 우리들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쉽게 손가락질하지만 그들은 단 한 순간도 자신들을 위선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한다. 누가 세상적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신념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범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일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되뇌이면서도 내면에는 세상적인 유익이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을 숨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주님의 편에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의를 내려 놓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만 한다. 스스로 내세우는 의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는 사람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스스로를 설명하겠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예수님 편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입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1)(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1:6)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인삿말 마지막에 로마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해 언급한다. 6절은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라고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독자들은 아마도 로마 교회 교인일 거라고 추측할 것이다. 사실 그 추측은 옳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모두가 그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

먼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이다.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다. 그가 불신자여서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겨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바로 그 죽음의 증인이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더더욱 앞장섰다. 단순한 증인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박해자가 된 것이다.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신 그날도 그랬다. 그는 다마스쿠스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일종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급히 그리로 향하던 중이었다. 며칠을 걸었는지 모른다. 다마스쿠스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열심을 인정받을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강한 빛이 바울을 비췄다. 그리고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땅 바닥으로 쓰러졌다. 강한 빛으로 인해 눈도 뜰 수 없었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와중에 어디선가 온화한 음성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행9:4-5).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순간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아 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주여 뉘시오니이까?”

또 다시 같은 음성이 더욱더 또렷하게 들려 왔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자 자기가 먼저 그분을 열심히 찾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온화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다.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상태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⁴³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⁴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갈 1:13-14).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 과정을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이렇다.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한 왕이 있었다. 이웃 나라에서 그 왕의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했다.

“왕이시어.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당신의 아들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호적에 올려주시어 지금부터 저를 왕자로 삼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이지 매우 특별한 은혜다. 우리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 주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힘도 없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게 해주셨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맹신하는 사람일 수 있다. 필자는 지금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의 신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2)(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1:7)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세상을 살다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부르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서 반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왜 특별히 부르신걸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실현되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이전에도 계속 있어왔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찬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⁵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⁶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⁷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3-7).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십자가 상에서 확인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표현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 들이다. 이름 그대로 완전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고 흠없이 거룩한 자들이다. 본질상 죄인이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존재의 본질 자체가 변할 수 있을까?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을 용서받은 죄인이라 부른다. 의인이 된 죄인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인인 사람에게 ‘의인’이라는 단어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얼핏 들으면 모순 같이 들리는 이 말이 실제로는 모순이 아닌 이유는 간단하다.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와 인간 세상의 정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용서’다. 용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이다. 인간의 용서는 행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하지만 성경의 용서는 사전적 의미의 용서보다 훨씬 확장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에미’(ἀπιήμι)다. 이는 단순히 죄를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헬라 문화에는 도편추방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공동체에 악을 끼친 사람들을 추방하는 제도였다. 그런 그들에게 용서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사람을 아무런 조건없이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듯 용서(아피에미)는 죄인을 조건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격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을 뿐 어떤 일도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순간 하나님 지성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자기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독단으로 죄없음을 선언 받은 사람들이 성도다. 그렇기에 비록 세상에서 죄를 지어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설령 국가의 법을 어겨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성도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시면 그분 스스로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그 지위가 유지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입양한 성도를 어떤 이유로든 파양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실 의외로 파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¹⁰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¹¹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¹²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¹³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¹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0-14).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음으로써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도는 인간들 스스로가 깨끗하게 되어 거룩을 쟁취해 낸 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죽은 덕분에 값없이 거룩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도라 자칭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죄 문제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없음은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쁘게 누려라. 그 누림의 시작은 자신의 과거의 죄와 실수로부터 풀려나는 것이고, 앞으로 또 실수를 할까봐 걱정하거나 조바심을 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것을 누리고 말고는 우리 자신의 몫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죄용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용서로 인해 당신이 누리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